

오늘의 建築에 對한 建築士의 責任

韓奎峯

(建設部 建築擔當官)

期間 通卷 148號를 내는 동안 內容의 忠實을 거듭해온 “建築士”가 建築學術誌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면서 이번號를 住宅特輯으로 만든다는데 크나큰 意義를 가지며, 때문에 建築에 對한 대단한 哲學이나 識見이 없으면서도 펜을 잡게 된 것이다.

建築物을 設計하는 사람을 그가 設計한 建物の 規模나 週邊에서 받는 評에 따라 “家”와 “士”로 區分하기도 하고, 建築에 對한 修學의 程度와 現在 몸담고 있는 職場等を 基準으로 삼아 “建築家아무개” “아무개建築士”로 區分하여 呼稱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이처럼하여 建築家로 自處하거나 呼稱받는 사람이 建築設計事務所를 開設하여 建築設計를 業으로 하게되면 建築家+建築士로서, 建築家의 待接을 극구(?)마다하는 建築士는 建築士만의 立場에서, 後進을 養成하는 教育者와 施工現場에서 建築을 마무리하는 建築技術者는 各各 그 立場에서 建築에 關聯된 諸般事項들에 對하여 그때 그때 自身에게 便利하고 有利한 立場을 말하고 또 서로를 욕하거나 칭찬하기도 하지만 社會의 一角에서 말하는 오늘의 우리 建築에 對한 責任은 法에서 “建築設計를 營業으로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는者”를 줄여서 이름붙여진 建築士나 어느 特定 階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建築設計事務所를 開設한 建築士協會會員만의 責任은 더더욱 아니다.

建築徒를 指導하면서 學門의 研究의 先奉에 선 教授로부터 建築設計者·監理者 및 施工技術者 特히 빠져서는 안될 筆者와 같은 公職者等 오늘에 살면서 建築分野에 從事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建築에 對한 責任은 그 先後를 가릴 수 없을만치 누구에게나 重大한 것이지만 하늘과 바다 그리고 後方砲台의 支援을 받으며 高地를 占領 하려는 作戰의 成敗에 對한 功過가 一線業務指揮官에게 돌아가듯이 建築에서도 一次的인 功過는 建築士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建築이 發展된 面을 이야기하면서 稱讚할 때에는 그 功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욕을 하게될 경우에 限해서 建築士를 들먹이는 世習에 直面하여 씩씩 함을 맛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허나 過去와 現在의 建築教育이 어떻고, 一線建築士를 보는 社會의 偏見, 建築關係法令이 어떻고간에 建築士 個人 더 나아가 모두의 責任과 걸어온 過去 그리고 現在

의 마음 가짐 등에 對하여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公職에 몸담고 있으면서, 더욱이 法令이나 規定을 制定하는데 關與하면서 建築士의 活動을 制約(?)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라고 筆者를 指目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런 處地이긴 하지만 公職者로서가 아니라 나自身도 같은 길을 걷는 立場에서 建築을 생각해 보고 곁들려 몸담고 있는 職業上의 辯도 보탬까한다.

一部 國民들이 불품없이 建築된 建物이나 내 天地인 양 法을 어기고 지어진 建築物을 탓하면서 응당 建築士 아무개建築士라고 指稱하는 경우도 그리 흔치 않다) 를 끌어들이며, 政府가 建築에 關聯된 制度나 法令의 改善方案을 檢討하면서도 一部 建築士의 잘못이나 마음 가짐을 가운데 놓고 拳論하게 되는게 常例이다.

그 理由는 무엇이며 果然 모든 建築士가 이와같은 非難의 對象이 될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것일까?

解答은 簡單한것 같다. 그 原因들이 될만한 處事가 一部에 依해서自身도 모르는 사이이거나 故意的 傍觀狀態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建築文化·技術의 發展에 寄與하려는 内心에서의 努力이 多少(?) 不足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적지않게 많은 분들이 이에 反對論을 펼것이며 筆者 또한 이에 同意한다. 다만, “先生님처럼만 하신다면 무슨 問題가 있겠습니까?”라는 條件附同意이다.

“建築士”誌가 特輯編輯方式으로 轉換하면서 그 첫號를 住宅特輯으로 計劃하는 것이 뜻하듯이 우리나라의 建築에서 住宅이 차지하는 比重은 大端히 크다. 政府의 政策的 比重은 뒤로 돌리고라도 住宅은 許可件數로 全體의 80% (延面積比 55.5%)内外를 占하고 있으며,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는 속담이 例外없이 適用되어 不實施工, 違法建築等 雜多한 말썽은 住宅建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住宅이 아닌 建築物에서의 違法行爲는 100坪에서, 300坪以下 規模와 3層以下의 建築物에서 가장 많이 發生하고 있음이 統計上으로 나타난다. 말썽 많은 이들 建物の 設計와 工事監理를 할 수 있는 者가 建築士協會會員中 어느 一部에게만 限定된것이 아니고 모두 (俗稱 1,2級 建築士 모두)가 할 수 있는 業務範圍이고 보면 共同意識이 더 強化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建築許可에서 부터 竣工까지 特別히 共同住宅의 경우라면 入住後 상당한 세월이 흐를때까지 말썽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原因이 建築士에게만 있느냐? 그런것은 아니다.

建築의 主体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될 수 없을 만치 많고 그 하고 많은 建築主 各者가 自己慾心대로 建築하려고 하고 있으며, 法令의 規定을 輕視하고, 利潤을 目的으로 하는 建築인 경우 過多한 慾心이나 不知에 依한 不實工事等 建築士業務領域에서 起因되는 原因 또한 허다하다. 그러나 設計를 하고 계속하여 工事 監理까지 하는 建築士가 自己의 設計作品이 빛나가지 않고 그대로 잘 建築되기를 바라는 愛着心과 社會的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建築物의 發生을 防止하려는 誠實한 努力이 現今보다 조금만 더해지고, 後代가 오늘의 建築으로 오늘에 산 建築士를 評價하며 建築遺産은 當代의 文化 尺度가 된다는 事實에 銘心한다면 建築士以外의 者들로부터 생기는 問題點은 없어져 갈것이고 設計者 또는 監理者로서 不美스러운 처분을 받게되는 일, 나아가서 모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넓은 平野의 좁은 논두렁길을 걷기는 그리 어렵지도 않으며 시골의 풍요한 情趣를 느끼곤한다. 논두렁길 보다 더 넓긴하지만 바로 아래에 수직적되는 낭떨어지가 있는 벼랑길을 걸어가려면 그길에 들어서기도전에 무서운 恐怖感이 앞설것이다. 愛人과의 同行이라면 다르겠지만.

생각해 본다. 勿論 假定이다. 法の 限界線에 바삭 붙여서, 違法되게 施工되지 않을 수 없게 - 예컨대 住居地域에서 建弊率을 59.9%로, 12M 의 도로에 바삭 붙여서 建築하는 집의 높이를 18M로 - 設計해놓고, 이 工事は 내가 責任지고 監理하겠노라고 財閥會社社長것에 뒤지지 않는 큼직한 도장을 쿵적고 그것도 손수가 아니라 職員의 손을 빌어서 責任질者 스스로가 設計圖書를 檢討하지도 않은채 責任捺印을 시키고 建築許可를 받아준다. 그러곤 잘 하고있겠지하고 傍觀하거나 바빠서 現場에 나가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어김없이 違法施工이 되고만다. 뜯어고칠 수도 없고 人情上 또 繼續的인 營業을 爲한 自救策으로 어쩔수없이 違法을 감추는데 建築主와 施工者에게 同調하게 될지도 모른다. 主人의 비위를 크게 거슬리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事後에 不幸하게 되었을 때를 생각하여 對備는 하겠지만.

結果는 뻔한것이 아닌가?

애당초 始初부터 벼랑가의 오솔길을 擇했으니 - 愛人과 同行하는 氣分으로 무서운것을 잊어버릴 수 있듯이 백이나 요행을 愛人으로 착각하고 택한 길이라면 더욱 困難한 일 - 營業停止處分 深하면 무순取消는 基本設計에 反映된 것이 아닐까?

모르는 사이이거나 스스로가 받기로 構想(?) 된것이나 다를바 없는 結果에 對한 一部의 一致된 見解는 “處罰基準이 너무 強하다. 協會는 當國이 이를 緩和토록 努力하지

않고 무얼하고 있는가?”이다.

앞에서 前提했듯이 이는 空想으로 돌려둔다. 筆者의 뛰어난(?) 文章力으로 만들어진 글로서 끝나야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거나 類似한 事例가 万에 하나라도 있다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建築士는 너나할것없이 모두가 國家로부터 建築物을 設計하고 建築主와 施工者를 指導할 수 있는 技術的 能力을 認定받아 일하고 있다.

建築에 關한 그간의 研究와 力으로 長足の 發展을 한 것은 그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나 이것이 果然 建築士 모두의 努力과 研究의 結晶이나에 對하여는 答하기 어렵다.

平面的 概念에서 뻗들던 都市計劃이 뒤늦게나마 空間計劃을 包含하는 綜合計劃으로 바뀌어가고, 建築物은 一年이 다르게 大型·高層化 趨勢로 變貌되어가고있으며, 使用法이나 種類에서 單純하던 建築資材도 多樣한 種類의 新製品이 開發·普及되고 있어 새로운 것들을 보다 빨리 내것으로 消化하지 않으면 建築에 對한 國家·社會의 要求에 完璧하게 對處할 수 없게되었다.

都市와 建築에 對한 學問的 研究는 學界에 施工技術은 國內外에서 活躍하는 施工技術陣에게 맡기고 나머지 建築法令과 制度에 힘겹게 부딪치는 建築許可關聯業務만이 建築士가 해야할 일의 全部인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는 “法으로 建築士에게 지워진 責任이 너무 過重하다거나 억울하게 處罰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現場에서는 設計圖書대로만 施工하면 되는것.

資材의 選擇과 工法等 具體的인 事項은 建築主와 施工者에게 맡기고 前에 하던 工法이나 通常 使用하는 資材로 特別히 “色은 指定色”으로 하는 式의 設計로 끝날경우 工事 監理에 任하여 무진 努力을 한다하더라도 建築主를 이겨 내기는 力不足이 될것은 뻔하다.

色갈이 왜 저모양이냐는 非難에서부터 물탈마감으로 設計된것이 두툼한 타일을 붙이게 됨으로서 境界線에서 띄우는 距離未達로 몇個月의 營業停止處分을 받게되는 일까지 이 모두가 누구에게 責任이 돌아가며 이렇게 지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建築에 都市全體와 社會에 궁극적으로는 建築士 모두에게 미치는 影響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深思熟考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開發하고 品質이 向上되는 建築資材에 對한 綜合的인 知識과 先進技術을 보다 빨리 받아들여 設計에 反映하려는 모두의 研究와 努力으로 工法 및 資材의 開發을 先導하는 設計者로서의 風土造成이 建築의 發展을 期約하는 捷徑일 것이다.

家事用品·衣類等의 商品은 消費者인 使用者가 直接 選擇한다. 이 경우에도 店員은 “이 會社의 製品이 實用的인

고 價格이 싸다.”며 다른 製品과 比較하며 장황하게 說明하면서 손님을 自己에게로 끌어들이 반하게 만들어 놓는 利潤追求의 目的을 達成한다. 이들 店員은 기껏해야 店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教養教育을 받았을 程度에 그치지 免許所持者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自己店舖에 쌓여있는 商品의 長短점에 對하여 昭詳히 把握하여 하루하루의 장사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새로운 商品에 對한 慾求와 잘 안팔리는 것들의 短点を 한데 모아 이것으로 새로운 製品이 出現되도록 하는 큰 役割을 한다.

建築에서인 경우는 그집에 入位·使用할 建築主에게 工法과 資材의 選擇權을 송두리채 奪겨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거의 모두인 建築主가 建築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의 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代身하여 훌륭한 建築物를 建築하게 하도록 建築士免許制度가 있는 것이며, 醫師 辯護士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店員의 거짓말도 보면 장황한 說明에 眩惑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自意로 選擇하여 사는 商品들에 對해서도 品質이 어떻고 商道義가 어떻고하여 社會問題가 되는게 어디 한 두 가지인가?

하물며, 建築許可를 받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建築物의 設計를 獨占하고 있는 建築士의 業務에서야 어찌 雜多한 말씀이 하나도 없으리라 期待나 하겠는가?

더욱이 醫師가 診察을 하고는 알아서 藥을 사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한 部分을 建築主의 決定에 맡기거나 完璧한 設計圖書에 依하여 建築하는 경우라하더라도 自己作品을 拋棄하는 狀態가 된다면 말씀은 給水車를 기다리는 高地帶의 물동이 行列처럼 줄을 이을 것이다.

患者를 診察한 醫師가 藥을 알아서 쓰도록하는 例는 고사하고 処方箋도 써주지 않고 있는 世上이며, 高地帶의 물동이라도 점차 살아져가는데 남은 한가지는 줄어들 줄을 모른다.

問題의 發生을 줄이고 終局에는 完全히 없애는 方案— 이것은 쉽지는 않다. 高地帶의 물동이 行列을 줄이는 것처럼 市費의 投資로 解決될 수도 없고, 政府가 直接 建築主 個個人에 對한 指導·啓蒙을 한다거나 教育을 通하여 目

的을 達成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고 보면 不可避하게 建築을 設計하고 마무리되어가는 過程을 지켜보는 建築士의 努力에 期待할 수 밖에 다른 最善의 方案을 찾을수는 없는 것 같다.

建築家의 良心과 專門的 知識으로 誠實하게 設計하고 自己作品이 設計된 그대로 誕生되도록 하려는 建築士 本然의 姿勢로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 施工後에 생기는 問題가 없었다는 흔한 實例를 볼 때 이는 建築士가 Architect 이고 Engineer로서의 責務를 다한 結果라고 누구나 確信할 것이다.

建築士協會會員은 모두가 建築을 通한 營業行爲가 窮極의 人目的이긴 하지만 첫째로, 人間의 情緒의 生活空間과 環境을 創造하는 建築家로서의 責務를 벗어나지 않는 正道를 밟으면서 營業競爭을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좋은 일의 波及效果는 微微한 것으로 끝날지언정 말씀을 일으키는 나쁜 兇事가 全体에 미치는 影響力은 大端한 것임을 各者가 銘心하여야 하고, 셋째로, 建築의 Scale·技術 社會·經濟的 與件의 變遷에 따라 달라지는 建築家에 對한 國家·社會의 要求에 그 責務를 다할 수 있는 研究와 技術開發에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建築活動이 沈滯된 어려운 與件下일수록 會員의 努力으로 모아진 會費는 몇 사람의 代表가 先進外國의 建築을 調査·研究하는 費用으로, 國際建築研究團體 加入費로 設計와 工事監理에 關聯된 諸般基準의 制定等에 다른 名目에보다 優先하여 使用하고 그 結果가 會員 모두에게 波及되어 우리 建築文化의 發展에 寄與해 나간다면 活動舞臺는 나라밖으로까지 넓어지고 事務所의 設立目的 達成은 勿論 一部層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經營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말이 사라질 것이며, 建築家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活躍할 수 있는 모두의 權益과 社會的 地位는 堅固해질 것이다.

建築活動이 始作되면서부터 맨 먼저 손을 대고부터 建築이 끝나는 마지막 段階까지 最高建築技術者의 位置에서 떠주므르듯 할수도 있는 建築家로서의 役割이 不美스럽게 責任을 지게되는 結果는 一部當事者個人과 建築士協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國家·社會의 먼 훗날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임을 다시한번 새겨본다. (※)